

## 3. 소득과 소비

---

3-1 월평균 가구 소득 및 가구 수입원

3-2 월평균 가구 소비

3-3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

3-4 가구부채 여부 및 부채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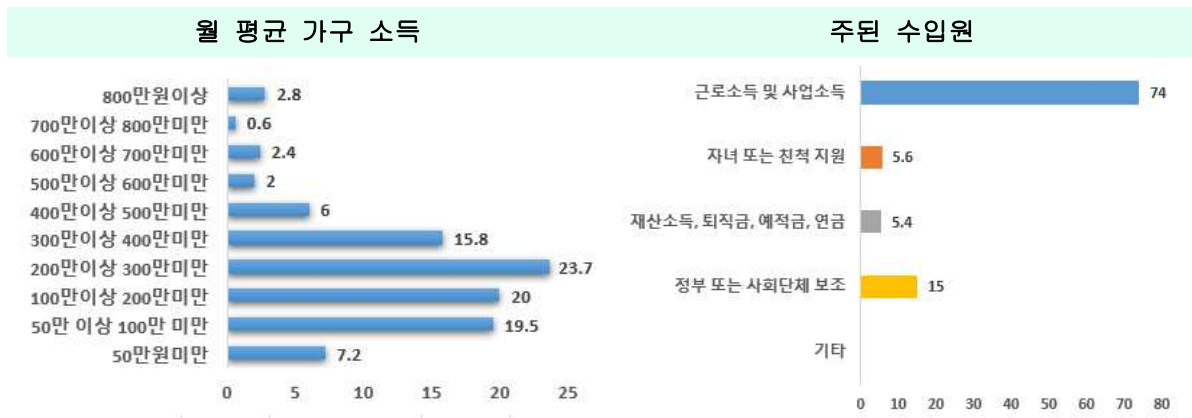
3-5 가구부채의 주된 이유

3-6 생활용품 구입장소

### 3 - 1 월평균 가구 소득 및 가구 수입원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며  
주된 수입원은 「근로소득 및 사업자 소득(74.0%)」이 가장 많아**

- 신안군민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세금 납부전의 총 '월평균 가구 소득'으로 「200~300만원 미만」이 23.7%로 가장 높고, 「100~200만원 미만」이 20.0%, 「50~100만원 미만」이 19.5%로 나타남
  -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에 비해 실업 및 비경제활동자의 '월평균 가구 소득'으로 「50만원 미만」은 30.4% , 혼인상태별에서「사별/이혼」은「50만원 미만」이 21.1%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요구됨
- 주된 수입원은 「근로소득 및 사업자 소득」이 74.0%로 가장 높고, 「정부보조 사회단체 보조(15.0%)」 「자녀 또는 친척의 지원(5.6%)」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 여자 모두 '가구 소득의 주된 수입원'으로「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 월평균 가구 소득(가구주) (단위: %)

구 분	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2 0 1 8 년	100.0	7.2	19.5	20.0	23.7	15.8	6.0	2.0	2.4	0.6	2.8

<표 3-2> 가구소득의 주된 수입원(가구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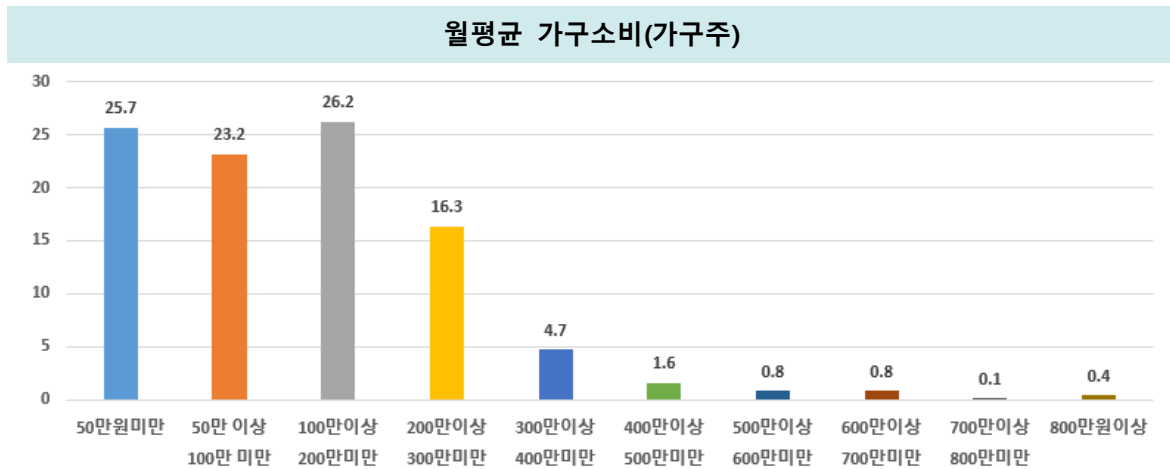
구 분	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자녀 또는 친척의 지원	재산소득, 퇴직금, 예(적)금, 연금	정부보조, 사회단체 보조	기타
2 0 1 8 년	100.0	74.0	5.6	5.4	15.0	

출처: 신안군 사회조사

### 3 - 2 월평균 가구 소비(가구주)

#### 월평균 가구 소비 「100~200만원 미만(26.2%)」이 가장 많아

- 월평균 가구 소비는 「100~200만원 미만」이 26.2%로 가장 많고, 「50만원미만(25.7%)」, 「50~100만원미만(23.2%)」, 「200~300만원미만(16.3%)」순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은 월 평균 가계지출이 「100~200만원 미만(27.9%)」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북부권(26.2%), 서남부권(26.9%)은 「5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로 타남
- 여자의 월평균 가계지출 「50만원 미만(63.1%)」의 비율은 남자의 13.0% 보다 높게 나타남
  - 남자는 월평균 가계지출이 「100~2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1.8%로 나타남



<표 3-3 > 월평균 가구소비(가구주)

(단위: %)

구분	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2018년	100.0	25.7	23.2	26.2	16.3	4.7	1.6	0.8	0.8	0.1	0.4
< 지역 별 >											
중부권	100.0	24.1	24.1	27.9	19.2	4.7	0.0	0.0	0.0	0.0	0.0
북부권	100.0	26.2	23.0	24.2	14.0	2.2	3.7	3.3	1.8	0.0	1.6
서남부권	100.0	26.9	22.5	25.8	15.1	6.4	1.9	0.0	0.9	0.4	0.0
< 성 별 >											
남자	100.0	13.0	23.3	31.8	20.8	6.0	2.2	1.1	1.1	0.2	0.5
여자	100.0	63.1	23.1	9.6	3.3	0.8	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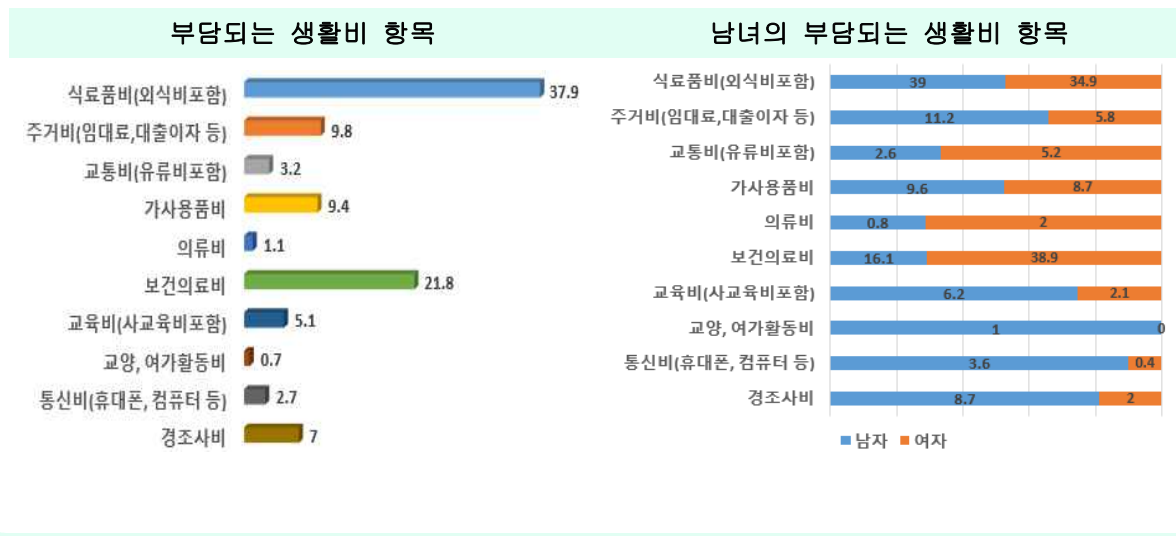
출처: 신안군 사회조사

### 3 - 3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가구주, 주된응답)

####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는 「식료품비」로 나타나

• 생활비 중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식료품비」가 37.9%로 가장 높고, 「보건의료비(21.8%)」, 「주거비(9.8%)」, 「가사 용품비(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자에게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은 「식료품비(39.0%)」가 가장 높고, 여자는 「보건의료비(38.9%)」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남자의 3대 생활비 항목은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주거비」순이며, 여자의 3대 항목은 「보건의료비」, 「식료품비」, 「가사용품비」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교육비」는 40~49세가 21.5%로 가장 많으며, 「의류비」는 15~29세가 15.4%로 나타남. 60세 이상, 65세 이상은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으로 「보건의료비」가 35.5%, 39.4%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통신비」는 30~3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4 >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

(단위: %)

구분	계	식료품비(외식비포함)	주거비(임대료,대출이자 등)	교통비(유류비포함)	가사용품비	의류비	보건의료비	교육비(사교육비포함)	교양, 여가활동비	통신비(휴대폰, 컴퓨터 등)	경조사비	기타
2018년 <지역별>	100.0	37.9	9.8	3.2	9.4	1.1	21.8	5.1	0.7	2.7	7.0	1.0
중부권	100.0	43.1	4.3	4.5	12.2	1.1	23.0	3.9	0.0	0.2	5.3	2.4
북부권	100.0	29.5	14.8	4.6	9.0	0.0	20.7	5.4	2.0	6.9	7.2	0.0
서남부권 <성별>	100.0	38.5	11.8	1.1	7.0	1.8	21.5	6.2	0.6	2.4	8.6	0.4
남자	100.0	39.0	11.2	2.6	9.6	0.8	16.1	6.2	1.0	3.6	8.7	1.4
여자	100.0	34.9	5.8	5.2	8.7	2.0	38.9	2.1	0.0	0.4	2.0	0.0

출처: 신안군 사회조사

### 3 - 4 가구부채 여부 및 부채금액

#### 가구부채는 「없음」이 42.1%,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16.6%

- 가구부채 여부 및 부채금액은 「없음」 42.1%, 「2천만원~3천만원 미만」 16.6%,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14.7%,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14.3%,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13.8%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부채가 있는 경우 15~29세의 경우,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100.0%)», 30~39세의 경우 「5천만원 이상~1억 미만(26.6%)», 50~59세의 경우 「1억 이상(21.1%)」으로 나타남
- 부채금액을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의 경우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16.3%)», 실업 및 비경제활동자의 경우 「500만원 미만(44.4%)」으로 나타남



<표 3-5> 가구부채 여부 및 부채금액 (단위: %)

구분	계	부채금액										없음
		있음	소계	500만원 미만	5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미만	1억이상	
2018년 <지역별>	100.0	42.1	100.0	8.0	13.8	14.7	16.6	14.3	7.4	14.6	10.6	57.9
중부권	100.0	40.4	100.0	6.9	8.1	12.0	9.2	9.4	9.5	23.4	21.5	59.6
북부권	100.0	51.6	100.0	1.4	18.9	20.6	20.9	27.7	5.7	3.5	1.4	48.4
서남부권 <성별>	100.0	37.7	100.0	15.0	15.2	12.2	20.4	7.4	6.7	15.4	7.6	62.3
남자	100.0	50.9	100.0	8.6	12.3	15.4	15.2	15.1	6.6	15.3	11.4	49.1
여자	100.0	16.4	100.0	2.2	27.9	8.2	29.2	6.8	14.5	8.6	2.8	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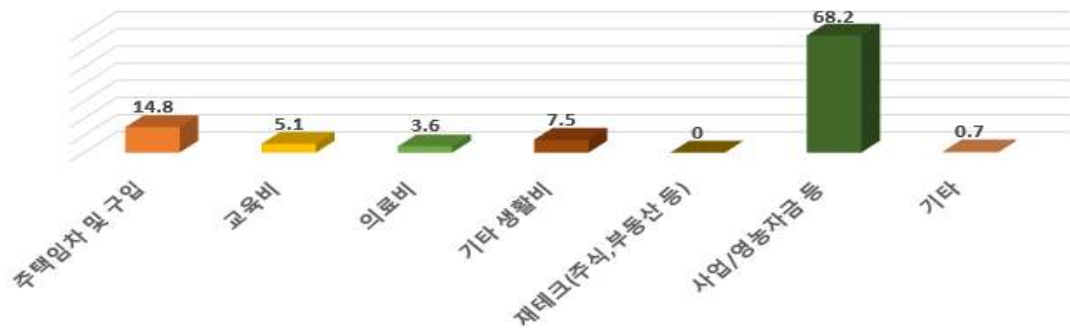
출처: 신한군 사회조사

### 3 - 5 가구부채의 주된 이유

#### 가계부채의 주된 이유는 「사업/영농자금 등」 68.2%

- 가계부채의 주된 이유는 「사업/영농자금(68.2%)」, 「주택임차 및 구입 (14.8%)」 「기타 생활비(7.5%)」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업/영농자금 등」의 경우 북부권 86.3%, 중부권 67.2%, 서남부권 53.1%의 순으로 나타남
- 「사업/영농 자금 등」이 높은 연령대는 50~59세 71.3%로 가장 높으며, 60세 이상 71.0%, 65세 이상 69.9%, 40~49세 67.3%, 30~39세 57.8%의 순으로 나타남
- 부채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문/관리, 사무직은 「주택임차 및 구입」이 높고, 서비스/판매, 농림어업, 기능/노무직은 「사업/영농자금」이 가구부채의 주된 이유로 나타남

가계부채의 주된 이유



<표 3-6 > 가구부채의 주된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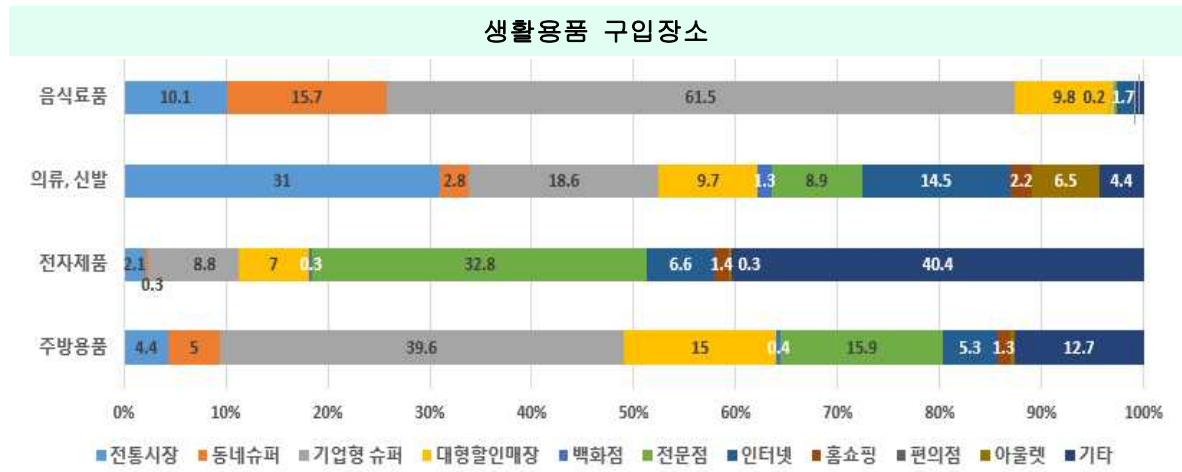
구분	계	주택임차 및 구입	교육비	의료비	기타 생활비	채테크(주식, 부동산 등)	사업/영농 자금 등	기타
2018년	100.0	14.8	5.1	3.6	7.5	0.0	68.2	0.7
< 지역 별 >								
중부권	100.0	16.5	4.5	4.0	7.7	0.0	67.2	0.0
북부권	100.0	1.0	2.8	2.7	7.2	0.0	86.3	0.0
서남부권	100.0	25.3	7.7	4.1	7.7	0.0	53.1	2.0
< 성 별 >								
남자	100.0	14.7	5.4	3.3	5.5	0.0	70.3	0.8
여자	100.0	15.9	2.3	6.4	26.3	0.0	49.1	0.0

출처: 신안군 사회조사

### 3 - 6 생활용품 구입장소

#### 생활용품 구입은 상품에 다르게 나타남

- **음식료품, 주방용품은 「기업형 슈퍼」, 의류, 신발은「전통시장」, 전자제품은 「전문점」 에서구입**
  - 「음식료품」 구입을 위한 전통시장의 이용은 미혼보다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이혼인 상태가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의류, 신발」의 인터넷 구입은 15세~29세의 연령대가 압도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 전문/관리직의 경우가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의류, 신발」의 경우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취업자, 실업 및 비경제활동의 경우 모두 「전통 시장」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 「전자제품」은 32.8%가 「전문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기업형 슈퍼」는 8.8%로 나타남
  - 「주방용품」은 39.6%가 「기업형 슈퍼」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문점」은 15.9%로 나타남



<표 3-7 > 생활용품 구입장소

(단위: %)

구분	계	전통시장	동네슈퍼	기업형슈퍼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전문점	인터넷	홈쇼핑	편의점	아울렛	기타
음식료품	100.0	10.1	15.7	61.5	9.8	0.0	0.2	1.7	0.1	0.0	0.0	0.9
의류, 신발	100.0	31.0	2.8	18.6	9.7	1.3	8.9	14.5	2.2	0.0	6.5	4.4
전자제품	100.0	2.1	0.3	8.8	7.0	0.3	32.8	6.6	1.4	0.0	0.3	40.4
주방용품	100.0	4.4	5.0	39.6	15.0	0.4	15.9	5.3	1.3	0.0	0.4	12.7

출처: 신안군 사회조사